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6주일(성모 성월)
제31권 27호(가해) 2011.5.29

[묵상]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성 베드로<1425년, 마사초, 피렌체>

떠나시기 전
저희가 걱정스러운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실
보호자를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저희들이 잊을까봐,
혹은 다르게 왜곡할까봐
제대로 기억하게 해주실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당신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당신 안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당신의 계명을 깨달을 수도
당신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라면
저희는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듯
성령을 통해 저희들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당신과
다함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과 함께인 저희들도
당신이 완성하신 그 사랑을
멋지게 완성하렵니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반천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권순봉 요안나, 엄은섭 도로테오
특전미사	(생)김옥 안토니오,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김지수 보나, 김지에 크리스티나
주 일 낮 미사	(연)이덕철 루카, 김석돈 요셉, 이숙자 루피나, 윤홍중, 고준희 제임스, 박송희, 엄익찬 안토니오, 문인명, 김완태 다미아노, 신태동 요아킴, 임홍규 베드로, 이정기 클레멘스 & 이복례 마사
	(생)엄정자 분다,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최성자 카타리나, 김소영 요안나, 이크리스 아가토,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Apostles) 8,5-8,14-17

화답송 ○은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은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나이다!" ○
○"은 세상이 당신 앞에 있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다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시네.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 2독서 베드로 1서(1 Peter) 3,15-18<또는 4,13-1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요한(John) 14,15-21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70	200	166
봉헌	326	261	269
성체	주 품에 품으소서	162	305
파견	169	199	326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 생명의 복음을 위한 봉사

자선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과 정치 분야의 투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실천에 옮기는 일도 필요하다.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다원적인 우리 사회 안에서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이 된다. 개인과 가족, 집단과 단체들이 서로 다른 이유와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 다 사회를 형성하고, 문화, 경제, 정치, 입법 계획들을 발전시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민주적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개인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보호되는 사회,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보호되고 향상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공헌할 것이다. 이러한 임무는 특히 국가 지도자들의 특별한 책임이다. 국민과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그들에게는 특히 입법 수단들을 통해서 생명을 지원하는 용감한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과 결정이 다수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개인 양심에 의한 개별적인 의무감이 권위로 덮혀 약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의무를 저버릴 수 없으며, 특히 그가 입법이나 결정을 위한 위임권을 지니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위임권은 그 사람에게, 공동선에 반대될 수도 있는 결정에 대항하여 하느님과, 자신의 양심과, 사회 전체에 응답하도록 요구한다. 비록 법이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닐지라도,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도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고한 사람의 천부적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법은 불의한 법이며, 따라서 법으로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밝히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함으로써 사회의 조직 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지 말기 바란다.

교회는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생명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드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상이한 모습들을 지닌 강력한 문화적 조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개인들의 양심이 도덕적 진리의 존재를 강하게 느껴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서 시작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양보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일들을 고려하여,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정의로운 결서를 재건하게 이끌어줄 것을 선택하도록 고무하고 있다. 이 점에서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불의한 법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가정과 모성에 대한 적절한 원조를 보장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공격을 유발시키는 기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가정정책이 모든 사회정책들의 기초가 되고 건인차가 되어야 한다. (◆계속)

내 안에 너 있다.

언젠가, 텔레비전 인기 드라마에서 나온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 안에 너 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이 말이 연인들에게 한때 유행이었지요.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고 이미 하나임을 뜻하는 이 말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시는 사랑의 일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지요. 사랑이신 성삼위 안에 우리를 같은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늘 당신 마음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분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분이 이렇듯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내가 남몰래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 심판하시겠구나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곰곰이 묵상해보면 하느님께서 그만큼 나를 잘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비로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며 소외시킬 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거나 잘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기에 오히려 우리를 변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버려짐과 소외의 두려움 속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등지는 상황에서 주님의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오로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우리는 그분의 깊은 사랑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며 우리 또한 주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한다면 성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치의 기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사랑을 실천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일치적 사랑입니다.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적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 오늘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해봅니다.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성바오로수도회 준관구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이호미 엘리사벳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채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신덕례 데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송민영 보나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데레사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례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전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6월

예수

성심성월

- ◆ 성시간 : 2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토런스 서구역
- ◆ 병자 영성체 : 3일(금) 오전 10시부터
- ◆ 성모신심 미사 : 4일(토) 오전 8시30분

-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후원회 회원모집
 - 일시 : 이번주 5월28일 토요일전미사와 29일 주일미사
 - 미사집전 : 최용훈 요셉 신부(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 백삼위 본당교우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323)388-7737
- ◆ 본당 수녀님 북미주 한인 수도자 피정 참가
 - 일정 : 5월31일(화)~6월10일(금), 산타바바라 피정의 집
 - 수녀님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 첫영성체 예식
 - 준비모임 : 6월4일(토) 오후3시, 교해성사, 리허설
(세례식 : 오후 5시)
 - 첫영성체 예식 : 6월5일(주일) 낮11시 미사중
 - 축하식 : 낮미사 후 강당
-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성경 퀴즈대회
 - 일시 : 6월12일(주일) 오후 2시
 - 범위 : 루카복음, 전례상식, 성가 알아맞추기
 - 게임방식 : Jeopardy 방식의 30문제
 - 팀구성 : 6구역(토런스 동, 서, 남, 북, 하버/카슨, PV)
 - 선수구성 : 구역대표선수 최대 7명 선발 가능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배론청년회장 ☎(310)650-6057
-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야외 십자가의 길' 조성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신자들의 숙원 사업의 하나인 '야외 십자가의 길'을 성모상 주변에 조성하여 본당의 날인 9월18일 경 봉헌할 예정입니다. 뜻있는 단체와

개인의 봉헌을 기다립니다. 현재 5개 단체가 봉헌했습니다.

- 단체봉헌 마감 : 6월30일
- 개인봉헌 : 단체봉헌 마감 후 * 문의 : 본당 신부님

◆ 제24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시 : 6월2일(목)~5일(주일)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한국지구장)
- 문의 : 성령기도회 회장 최기남 야교보 ☎(310)569-3940

◆ 예비자 교리반 LA 주교좌성당 전학

- 일시 : 6월4일(토) 오전 10시~오후3시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대상 : 예비자와 가족, 봉사자
- 내용 : LA주교좌성당의 의미와 역사

◆ 백삼위골프토너먼트

- 일시 : 6월11일(토), 티오프 낮 12시(11시20분까지 집합)
- 장소 :레이크우드 골프코스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총무 ☎(213)272-3598

◆ 주일학교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 행사일정 : 6월12일(주일학교 종업식날)
- 한국학교 은총시장도 같은 종업식날 열립니다.

◆ 유아세례 신청

- 일시 : 6월25일(토) 오후 6시
- 대부 대모를 정하시고 세례식에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당일 5시50분까지 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 세례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1주일전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 메모리얼데이 연방공휴일 관계로 5월31일(화) 성당사무실 휴무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29일(주일) : 친교자리 없습니다.(메모리얼데이연휴)
- 6월5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권오상	김우용	김 욱	김찬구	김현숙
	남성철	노찬술	박상원	박완철	서성용	엄세종
	원건희	유철희	윤화경	윤희동	이용식	이일길
	임연조	조소영	채양석	최길주	최재은	최진수
	최현찬	한해숙	한길선례			
	합계 : \$3,500					
미사헌금 : \$2,886						
성전헌금	강태홍	권오상	김우용	김 욱	김찬구	김현숙
	남성철	노찬술	박상원	박완철	서성용	엄세종
	원건희	유철희	윤화경	윤희동	이용식	이현주
	채양석	최길주	최재은	최진수	최현찬	한해숙
	한길선례					
	합계 : \$2,810					
주보광고후원 : \$500(감사합니다.)	한남체인 도네이션 : \$390					

주일학교 소식

◆ 오늘 주일(29일) 선데이스쿨/한국학교 수업없습니다.

- 5월30일 메모리얼데이 연휴관계로 29일 주일 학교수업이 없습니다.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있습니다.

◆ 서머캠프

- 일시 : 6월24~26일(금,토,일) 금요일 오전 9시 성당집합
- 대상 : 3학년~12학년
- 장소 : 카추마 레이크(샌타바바라), 텐트에서 숙식
- 준비물 : 슬리핑백, 수영복, 모자, 운동화, 슬리퍼, 여벌옷, 재킷, 선블럭, Insect Repellent, 타월, 주일헌금
- 참가비 : \$40(5월30일이후 신청 \$60) *신청 : 주일학교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금요일 낮12시 성당집합
- 참가비 : \$185(5월30일 이후신청 \$205)
- 접수 : 주일학교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남가주 소식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일시 : 6월11일(토) 오후4시~밤 9시30분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 강사 :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톨릭신문 미주지사 사정)
- 대상/내용 : 남가주 전 신자, 찬미/미사/특강/안수
- 문의 : 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 총무 ☎(213)435-7570

◆ 남가주 M.E. 골프대회

- 일시 : 6월21일(화), 낮 12시 등록, 티오프 오후 1시
- 장소 : 리버사이드 Oak Quarry 골프클럽
- 진행방식 : 샷건플레이
- 회비 : \$100
- 문의 : 이남현 박시모 ☎(213)272-3598

◆ 제4회 2011 FIAT 리더십 트레이닝 피정

- 일시 : 6월23일(목)~26일(주일)
- 장소 : 성토마스 한인천주교회(애나하임)
- 참가비 : 본당 후원
- 대상 : 주일학교 교장 및 교사, 중고등부 사목담당자, 청년사목담당자, 학생미사 음악봉사자 등
- 피정프로그램 구성 : 기본/실질적 사목능력교육, 영성교육
- 문의 : FIAT웹사이트 www.fiat.org

◆ 20-30대 'Come and See' 색다른 신앙여정에 초대

- 일시 : 6월24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애나하임)
- 문의 : 리더아 ☎(714)514-5161, 도미니크 ☎(714)457-9571
- 주최 : 청년 프란치스칸회 www.mygodmyall.net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장	이경수 헬레나	(310)415-0034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김정희 올리아 830-0106 5/6(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크리스 아카토 619-7763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25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경수 헬레나 415-0034	임진희 한나 415-0034 5/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크리스티나 750-4051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고천용 377-6328 5/13(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정충로 안토니오 325-9915 5/13(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인숙 안젤라 323-717-7866 5/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메모리얼데이 연휴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성전
-------------	-----------

2011년 환경의 날 담화문

인간의 오만함을 버리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비롯해 온 우주만물을 차례로 창조하시고는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대해, 시편의 저자는 “주님, 당신의 업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당신 슬기로 이루시어 세상이 당신의 조물들로 가득합니다.”(시편 104,24) 하고 감탄해 마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일구고 돌보는 존재입니다.(창세 2,15). 다시 말해 인간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연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창조주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다른 피조물과 창조세계를 돌볼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UN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촌 최대의 문제를 ‘기후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물과 식량 부족, 환경문제 모두가 기후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서, 현재 상태로 기후 변화가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5~6℃ 높아지고, 2130년에는 빙하가 모두 녹아 해수면이 75미터 상승해 20억 명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에 메탄가스가 많아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돼 결국 대규모 지진과 홍수, 산사태로 전 세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 태평양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강진으로 14미터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해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 피폭으로 많은 지역이 구 소련의 체르노빌과 같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땅과 공기 그리고 물, 가축, 채소, 수산물 등 먹을거리를 오염시킨 방사능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미래세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31% 수준으로 30%인 일본보다 높은 전 세계 5위의 원전국가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삼척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9%까지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0년 말부터 시작된 구제역으로 인해 348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 당했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한 가운데 획일적으로 진행된 가축들의 살처분으로 못 생명이 죽고,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가축들이 매몰된 곳에서 나오는 침출수 오염 문제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4대강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대강 지천 살리기 공사 추진과 4대강 주변이 친수구역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의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경제 만능주의, 생명경시 풍조, 소유와 향락, 무절제한 자연 개발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죄(罪)의 상황입니다. 이는 또 다른 바벨탑의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다른 피조물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을 망각한 것에서 생겨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땅과 물과 공기를 보호하고, 자연 황폐화에 따른 인류 자멸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의무입니다.”(201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2항).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태 문명을 살아야 합니다. 생태 문명은 우리의 작고 소박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원자력 에너지 대신 지역 단위의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나친 육식을 줄이고, 동물에게 좋은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도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으로 가축을 돌보아야 합니다. 4대강을 인간의 힘으로 준설하고 직강화하기보다, 구비 구비 흐르는 강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만함을 버리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문명의 방식입니다.

지혜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지혜 11,26).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처럼, 흐르는 강과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동식물들,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지구 자원들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지구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